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 승의목공예마을’ 기록				
구술자명	김유일	면담자	정지선		
면담장소	유성톱연마	면담지원	표기자		
면담 일시	2022년 8월 31일	회차	1	시간	1시간 23분 47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1563				
구술 개요	큰 회사에 있었어서 여러 기계를 접했음, 목공예센터 앞에 80년부터 41년간 있었음, 원주에서 올라와 인천 승의동에서 살았음, 1층과 2층을 모두 사용 중인데, 2층은 창고 겸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제대 후에 원주에서 결혼했음, 원판 원 재료를 들어서 형태를 깎고 따내면 된다고 함, 아버지께서 광산에서 일을 하시면서 일본어를 익숙하게 들어서 일본어를 잘했음. 중석(특수철)을 캐시는 일을 하셨음, 유성’은 너넨할 유, 성할 성, 직장에서 퇴사하고 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음. 애로가 많았지만 여러 도움이 있어서 할 수 있었음.				
주요 색인어	기계, 처분, 성형 전용기, 옛날 업장, 국민주택, 혜진 뷔페, 동원 예식장, 오토바이, 고전공예사, 임대, 아들, 딸, 친구, 이영복 씨, 결혼, 연마, 손, 지문, 광산, 6.25, IMF, 사모님, 요리, 유성, 대와 세, 청풍, 족보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파일(비공개)
1. 근황				00:00:00~ 00:01:56	▷ 활동기획안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녹취문
- 딸이 미국에서 들어와 보름 있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함. - 기계를 돌려놓고 돌아가다가 처서 손을 다쳤음.					
2. 기계 I				00:01:57~ 00:09:32	
- IMF 전에 6800만원짜리 기계가 있었음. 팔 때는 헐값에 팔았음. - 일본에 설게 갔다가 제작사에 의뢰해서 기계를 만들었음. - 큰 회사에 있었어서 여러 기계를 접했음. 기계는 좋고 나쁘고 없고 작업에 따라 다 중요함. - 아들에게 작업을 알려줘서 4-5년 하고 마스터했지만, 현재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음.					
3. 인터넷에서 찾은 과거 업장 사진 이야기				00:09:33~ 00:13:14	
- 현재 건축하고 있는 자리(목공예센터 앞)에 80년부터 41년간 있었음. - 처음 강원도 원주에서 생활하며 큰 회사에 일을 했었음.					
4. 거주지 이야기				00:13:15~ 00:18:48	
- 원주에서 올라와 인천 승의동에서 살았음. - 제물포시장 뒤에 있는 와룡 공장은 밖에서만 봤었음.					

- 미추홀구청 별관 밑에 있는 주택들이 제일 좋은 집이었음. - 지금 미추홀구청이 예전엔 경인교대였었음. 지금은 계산동으로 이전했음.		
5. 젊은 시절 오토바이 탔던 이야기		
- 차와 자전거는 살 힘이 안 돼서 오토바이를 하나 샀음. - 그 시절엔 무면허자가 많았음.	00:18:49~ 00:21:56	
6. 고려목공소 차기대 사장님과 거래		
- (고려목공소 사장님이 톱날을 갈아달라고 오심)	00:21:57~ 00:22:38	
7. 간판 이야기		
- 나무 간판은 고전공예사 사장님께 부탁해서 만든 것임.	00:22:44~ 00:23:29	
8. 가족이야기 I		
- 딸은 유학가서 결혼했음. - 지금도 자녀들한테 용돈을 받지 않고 생활함. - 아내가 환자여서 아이들에게 도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임.	00:23:30~ 00:27:07	
9. 가게 이야기		
- 가게는 임대해서 쓰고 있음. - 1층과 2층을 모두 사용 중인데, 2층은 창고 겸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 이 자리에는 2021년 9월에 왔음.	00:27:08~ 00:30:33	
10. 가족이야기 II		
- 자식은 딸, 아들, 아들 딸 이렇게 있음.	00:30:34~ 00:32:59	
11. 동료 or 친구 이야기		
- 주위에 가까웠던 친구가 요양원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갔음. 면회를 신청했었지만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싫다고 했음. 그 딸이 운구차가 가다가 가게 앞에 자연적으로 멈춰섰다고 함.	00:33:05~ 00:37:00	
12. 기계 II		
- 부품들이 일마다 다 틀림.	00:37:01~ 00:37:33	
13. 동료 or 친구 이야기		
- 2023년도까지 하길 바라지만 안 될 것 같은 생각. - 그 친구와는 가게에서 주로 만났었음.	00:38:05~ 00:43:51	
14. 가족이야기 II		
- 제대 후에 원주에서 결혼했음. - 아내와 서로 진실만을 이야기하자는 서약서를 썼음. - 군대에서는 행정업무를 했음.	00:43:52~ 00:46:09	

15. 연마 작업 이야기		
- 재료는 전부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국내에서도 만듦. - 원판 원 재료를 들어서 형태를 깎고 따내면 된다고 함. - 손이 닿는 부분에 지문이 없어졌음.	00:46:10~ 00:52:01	
16. 어린 시절 이야기		
- 고향은 제천. - 아버지께서 광산에서 일을 하시면서 일본어를 익숙하게 들어서 일본어를 잘했음. 중석(특수철)을 캐시는 일을 하셨음.	00:52:02~ 00:54:28	
17. 사업장 운영		
- 기계를 여러 대 팔려고 했지만, 할 수 없게 되었음.	00:54:29~ 00:55:17	
18. 시대 이야기		
- 6.25 때 16살이었으며, 시골에 살아서 피난가지 않았음. - IMF 시절에 크게 영향이 있지 않았음.	00:55:18~ 00:58:23	
19. 사모님 이야기		
- 아내의 음식 솜씨가 좋음. 아내 고향은 홍천읍. - 이모를 통해 만나게 되었음.	00:58:24~ 01:09:41	
20. 상호명 이야기		
- ‘유성’은 넉넉할 유, 성할 성. 직접 만든 이름임. - 직장에서 퇴사하고 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음. 애로가 많았지만 여러 도움이 있어서 할 수 있었음.	01:09:42~ 01:11:20	
21. 청풍김씨 이야기		
- 이름은 족보 이름으로, 24세 ‘유’자 돌림임. - 가문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청풍 세적이라는 게 있음. - 할아버지가 부원군(임금의 장인)임. - 대학교수들이 6년 걸쳐 발간한 책임.	01:11:21~ 01:20:31	
22. 마무리		
- 마무리 멘트	01:20:32~ 01:23:47	